

---

# 한국 전통문화에 기초한 문화상품 개발안 : 2002 한일 월드컵 대회 문화상품 캐릭터 연구

연구책임자 : 하동철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교수  
공동연구원 : 양승춘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교수  
임영규 / 세종대학교 예체능대학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조교수

---

## 목 차

###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 본론

1. 12지와 디자인상품
2. 한국의 전통의식과 12지
  - 1) 십간십이지
  - 2) 음양, 대립과 조화의 조형 의식
  - 3) 오행과 12지
  - 4) 디자인 개발
    - (1) 12지상 원형 시안
    - (2) 12지상 응용 상품
    - (3) 4신도 원형 시안
    - (4) 4신도 응용 상품
3. 장승과 응용 상품
  - 1) 장승에 대한 이해
  - 2) 장승의 기능과 의미
  - 3) 장승의 역사와 유형
    - (1) 조선 전기 이전의 장승
    - (2) 조선 후기의 장승문화
  - 4) 장승의 인간적인 특징
    - (1) 장군의 위엄
    - (2) 민중 모습
    - (3) 전형적인 촌부
    - (4) 아름다운 젊은 장승
    - (5) 상징적 석인상
    - (6) 나무 장승의 단순미와 자연미
    - (7) 변형된 장승
  - 5) 디자인 개발

### 결론

## 서론

### 1. 연구목적

우리는 국제화 또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캠페인과 활동을 벌여 온지 오래되었다. 또한 88올림픽과 아시안 경기대회와 ASEM 국제회의 등 수많은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한지 이미 오래되었고, 새로운 밀레니움 시대에 즈음하여 세계 속의 한국을 알리려는 노력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내년, 2002년에는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월드컵 경기를 개최하게 되어, 수많은 외국인이 우리의 사회와 문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동안 경제발전에 힘을 기울인 나머지, 한국의 고유한 아름다운 문화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데 태만한 부분이 있었다. 그 결과, 고유한 한국문화에 기초한 전통적, 정통적인 문화적인 산출물들이 빈약했으며, 일반 시민들은 전통세계와 그 아름다움이 거의 사라진 문화 속에 살게 되었다. 이러한 현대 한국 사회의 시각문화의 특징은 안으로는 전통적 한국의 의식의 결여와 함께 밖으로는 세계인들에게, 전통없는 무미한 사회, 개성없는 문화(시각문화)를 보여줄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의 사회에 대한 현실지도적이며, 참여적인 실제적 연구가 없었기에, 우리에게 대한 전통 의식, 우리의 고유한 미의식이 결여된 일반 시각문화의 여러 문제들은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전문적인 순수미술계나 디자인계에서도, 우리의 시각문화는 그동안 외국의 선례를 받아드리기 급급하였으며, 현대화가 서구화라는 논리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고유 문화유산에 대한 시각적이며 조형적인 전문적인 이해와 연구

가 미흡했음은 기지의 사실이다.

본 연구는 고유한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전통적인 시각문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통세계를 학술적으로 이해한다. 본 연구는 또한 새로이 전개될 시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일반인들이 실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둔다. 즉, 살아있는 전통세계, 살아있는 한국의 미술, 더 나아가 고유미를 갖는 아름다운 제품을 개발하고, 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전통과 함께 숨쉬는 새로운 시각문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선, 전통적인 세계관과 함께, 조형관을 찾아 볼 수 있는 12지와 장승을 이해하는데 내용을 둔다. 각기 다양하게 전개될 시각적인 연구와 함께, 그것이 갖는 우리의 문화에서의 상징성과 근원, 용례를 연구한다.

### 1) 조형적 특성과 상징체계의 기호적 연구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로 전개되는 동양적인 세계관과 철학관에 기초한 기호체계를 조형적으로 연구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세계의 상징체계를 비교검토하며, 우리의 독창적인 기호적, 상징적 특성을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한다.

### 2) 다양한 적용방식과 생활화에 대한 연구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12세계의 상징물로서, 12지간은 다양하면서도 해학적인 우리의 세계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조형적 특성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이에, 보다 깊은 세계에 대한 상징적 체계로서, 다양한 생활제품과 연관되면서 우리의 월드컵과 연관될 상징적인 제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기념제품, 생활제품, 시각기호제품 등에 다양하게 적용시켜 나간다.

### 3) 전통 장승과 시각문화

우리의 민중들의 삶이 응축된 장승과 솟대를 통해 역사와 특징을 이해하고, 현대사회에서 사용될 수 있는 아름다운 제품을 개발하여 다가올 월드컵경기에 수많은 외국인들의 인상깊은 여행이 되도록 돕는 실제적인 상품을 개발한다.

### 4) 이미지 캐릭터 작업

#### (1) 인지도

우리는 전통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어떤 성격을 시각화 할 지에 대해, 전통사상과 연관하여, 조형관을 살펴봄, 시각적 이미지를 풍부하게 개발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에 입각한 조형관을 상품성과 시각적인 인지도를 감안하여 개발한다.

#### (2) 단순화

전통에 기초한 다양하고 변화 많은 조형적 선들을 상품화시키기 적합하게, 조형적인 형태는 상징적이고, 다양한 연출력이 돋보이게 단순화하여 개발한다.

## 본 론

### 1. 12지와 디자인 상품

한국과 일본에서 개최되는 세계인의 대축제인 월드컵 경기는 우리의 문화적 사회적 모습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국제행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아름다운 디자인 상품이나 관광상품 개발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몇 개의 전통적인 세계에 기초한 관광기념물(티셔츠, 열쇠고리 등)과 여러 실제 교통시설, 공공휴게시설 디자인 그리고, 흥미와 즐거움을 주는 상품 개발을 위하여 노력한다. 문구 상품과 의복 상품, 각종 시각정보물, 게시판, 각종 마스코트 등의 개발이 요구되며, 12지 전통에 기초한 일반인들이 재미로 할 수 있는 해학과 오락성 있는 시각적인 체험을 가능케 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전통적인 조형물을 개발한다.

## 2. 한국의 전통의식과 12지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이 태어난 해에 따라, 12 동물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오래된 관습이 있다. 이 관습은 중국 사람들과도 유사하여, 중국에서는 생초(生肖) - 속(屬), 속상(屬相) 이라고 부른다. 대한문사전에서는 생초의 의미를 옛날에 열두 동물들을 십이지지에 분배하여 사람의 태어난 해를 기록하는데 사용했다고 적혀져 있어, 우리의 문화와 공통된 것이라 보인다. 한국에서는 한국의 역사적 문화적 세계관과 깊은 관계가 있어, 김유신 묘로 추측되는 묘지와 그 외의 다른 묘지에서도, 그렇게 12지를 둘러, 우리의 시간관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5방 개념과 함께 중요하게 내려오는 전통세계관이다. 비단 “민간의 종합적 사고형태요 민간철학의 관념세계 1”로서 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세계관이었다.

또한 12지는 음양오행에 맞춰 발전되어, 다양한 민속 문화를 형성하였다. 이 다양한 문화는 천문과 역법에 이어져, 방위나 시간의 개념을 찾을 수 있다. 12지는 장소에 대한 이해에서 시간, 일, 월, 년으로 이어져 원형적인 순환의 세계관으로 연결되었으며, 더 나아가 점 복, 해명, 택일, 사주, 궁합 등 다양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12지는 우리나라의 전통 사찰의 벽화나 불화, 현실내부의 벽화 등, 그리고 능묘의 호석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각종 그릇(도기, 토기, 목기)등 생활용품에서 그리고 장식물에서도 심미적 문양으로도 많이 발견되어, 얼마나 우리 고유의 전통의식과 연관이 깊은지 알 수 있다.

12지는 또한 자연과 세계를 파악하는 하나의 객관적인 질서를 이해하려는 것이며, 자연과 인간 사이를 조화시키려는 이해였다. 12지는 天人合一의 세계관(송대

의 세계관)이나, 天事와 人道의 조화된 세계를 기원하는 것이었다.

### 1) 십간십이지

중국 상나라부터, 연, 월, 일 등의 날짜를 기록하는데 사용한 십간, 십이지를 통합해 부르는 말이다. 간지의 뜻은 수목의 간지에서 나온 것으로, 간(干)은 간(幹)의 약자로서, 나무의 옆으로 뻗어난 가지를 뜻하는데서 시작되었다. 干은 하늘의 기운을 천간이라 하였고, 이를 양으로 보고 태양에 비유한다. 甲乙丙丁戊己壬癸로 구성되어 10간이라 한다. 이와 함께 지(支)는 땅의 기운을 지시하여 지지(地支)라 하였는데,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 라고 한다. 즉, 십간과 십이지를 순차적으로 연결하여 60십(화)갑자를 말한다. 이것의 기원은 일반적으로 황제 현원씨 때 사관인 대요가 황제의 명을 받아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음양오행과 연관되어, 세계관으로 발전되었다. 음양오행은 고대 중국인이 우주만상을 발전시켜 나왔으며, 우리의 세계관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태초세계를 천지와 일월성신이 분명하지 못하여 온통 캄캄한 혼동된 상태에서 한 중심에서 기가 없는 물(수)이 생성되고, 기는 있으나 체가 없는 곧, 불(화)이 생하고, 형은 있으나 질이 없는 나무가 나오며, 질이 있으나 체가 없는 태소(太素) 곧 금이 있다. 수를 숫자로 1, 화를 2, 목을 3, 금 4, 토를 5로 하여 삼원, 천지인과 태극이 되고, 경칭한 것은 하늘이 되고, 중탁한 것은 땅이 된다는 생각이 최초 세상이 이뤄질 때의 생각으로 이기음양(二氣陰陽)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조형은 그러한 음양의 생각을 존중하여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둔다.

### 2) 음양, 대립과 조화의 조형 의식

양계초에 따르면 음양은 햇빛의 유무를 기준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자연현상으로만 보아, 그 자체가 독립적인 실체로 파악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에 의

1) 김선풍, 한국인의 금기어와 금기담, '어문논집' 23, 중앙대학교 국어국문과, 1994, 3, p.23. 이찬욱, 한국의 띠문화, 황금시대, 1999, p.11.

하면, 춘추전국시대 이전에는 음양이나 오행과 같은 말이 드물게 나타나고 그 의미도 극히 평이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 시원은 대체로 연나라와 제나라의 방사(方士)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론을 더욱 발전시킨 사람은 전국시대 제나라의 추연과 전한시대의 유학자인 동중서, 그리고 유향이라고 전해진다. 음양을 신비한 체계로 만들어 동양사상의 기초를 이룬 사람들이다.

설문해자(設文解字)의 부부(阜部)에서 음은 어둡다는 것으로 강의 남쪽, 산의 북쪽을 가르킨다.阜자와 음자의 음을 합하여 양(陽)을 형성하고, 높고 밝다는 뜻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방은 후대에 붙여진 것으로 원래는 사실 음양(陰陽)이었다. 같은 책, 운부에서는 음(黔)은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으로 운(雲)자와 음(今)을 합한 자로서, 음의 기운을 상징한다고 보면 된다. 물부(勿部)에서 음자에 들어있는 云은 구름 운의 옛 글자로서 해를 가리는 것, 양을 가리는 것을 의미하여 어둡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성이 있는 마을 즉, 도시에서는 성을 등져 해를 가리면 북쪽이 되니 실제로 북쪽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같은 책의 물부(勿部)에서는 양(易)이 연다는 의미로 일(日)과 일(一), 그리고 勿이 합한 것으로 날린다, 길다라는 것, 굳센 것이 많은 모습을 의미한다. 그리고 태양의 양기를 즉, 해가 뜨면 세상이 밝고 따듯한 기운을 가지기에 실제로 양기를 의미한다. 이 책에서는 이자는 마을에서 내거는 깃발의 모습으로 설명하여 해가 땅 위로 떠올라 깃발을 내걸면 그 깃발이 매우 힘차게 날아 오르는 모습을 지시하는 것이 원래 뜻이다.

즉, 깃발을 다는 모습은 해가 뜨다는 뜻으로 양기를 지시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 그래서 밝은 빛을 볼 수 있기에 남쪽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의 작품은 이러한 측면에서, 음양에서 밝음과 어둠의 대조와 또한 남쪽, 북쪽의 대조에 조형적 근거를 두기로 하였다.

음양은 원래 해가 있거나 없는 날, 날씨를 의미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삼경(三經)의 전적 중에 음양이 사용된 예는 시경에서 음 8회, 양이 14회, 음양은 1회 사용되었고 서경에서는 음과 양을 말한 것이 각각 3회이다. 그리고 주역에서는 효시 중에는 단지 中部卦 九二꺾<sup>2)</sup> 양계소, 음양오행설지래역, 동방잡지 제20권, 제 12호, 1923 (김홍경 편역, 음양오행설의 연구, 신지서원)- 1993. 8. pp.29-37 -의 한 곳에서만 보인다. 이것은 은주시대 이전에는 크게 강조되지 않았으나, 후대 노자 후에 비약적으로 발달되고 공자의 十翼(주역의 해석서)에서 사용된 경우가 많다. 실제 우리의 주역과 동양사상의 이해는 공자의 해석이 많은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다. 공자는 음양을 無形 無象 한 대대(對待)적 성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야기하여 노자의 추상적인 음양적 세계관을 더욱 발전시킨다. 해가 잘비치는 따듯한 남쪽과 그들이 저서 추운 북쪽은 서로 대대가 되는 음양의 성질이며, 둘을 동시에 연합할 때는 항상 남북의 두 성질, 그리고 표면과 이면의 두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구(對句)를 만들며 이원적인 세계관을 구성한다. 두 성질은 대대이자, 상호의 연관, 상호작용으로 모든 존재가 생성된다고 한다. 강유(剛柔), 동정(動靜), 소식(消息), 굴신(屈伸), 왕래(往來), 진퇴(進退), 흠벽(翕闔) 등이 그러한 존재로 보여진다. 즉, 이원 철학과 그것이 생성되는 특성으로 보여지며 우리의 연구 안은 이러한 생각과 연관되어 직곡, 부드러운 것과 강함, 움직임과 조용함 등 수많은 조형적 특성과 대조를 여기에 근본을 두어 발전시킨다.

상생상반의 성격으로 발전하는 이 음양은 천지의 기로서 우주의 창조과정과 이 과정에서 만물이 형성하는 유기체를 설명하는 실제적인 존재가 된다. 또한 음양은 사람과 관계를 가지기 시작하여 남성과 여성의 상징으로 인간화된다고 믿는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12지는 오행과 연관되어 구체적이며 전통적인 사상으로 전개되었다. 오행은 만물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요소로 사용되었던 것이, 夏禹氏가 정치 도덕 법칙을 전한 홍범(洪範)을 주나라 무

2) 양계소, 음양오행설지래역, '동방잡지' 제 20권, 제 12호, 1923 (김홍경 편역, '음양오행설의 연구', 신지서원, 1993. 8.) p.29-37.

왕이 기자에게 전수한 구주에서 발견된다. 우선 첫번째 것을 오행이라 한다. 그 처음이 수(水)요, 둘째가 화(火), 셋째가 목(木), 넷째가 금(金), 다섯째가 토(土)이다. 물은 아래로 젖어 들고, 불은 위로 타오르고, 나무는 구부리거나 곧게 할 수 있으며, 쇠붙이는 뜻대로 모양을 바꿀 수 있고, 흙은 그 곳에 곡식을 심어 거둘 수 있다. 아래로 내려가며 적신 물은 짠맛이고, 위로 타오르는 불은 쓴맛이며, 휘어지거나 곧은 나무는 신맛을 내고 뜻대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쇠붙이는 매운 맛을 띄고, 곡식을 생산해 낼 수 있는 흙은 단맛이다. 3)

홍범의 다섯 가지 성격은 漢書藝文誌, 四庫全書叢目 常書正義條에서 다시 찾아 볼 수 있다. 즉, 물의 성질은 본래 단 것으로 오랫동안 땅속에 젖어 들어있으면 변하여 소금이 된다. 소금은 짜다, 불의 성질은 위로 타오르는 것인데, 물건을 태우면 탄내가 난다. 탄내는 쓴 기운이다. 나무는 열매를 맺고, 그 맛은 대부분 신맛이 난다. 쇠가 불에 있으면 비릿한 냄새가 나며, 그것은 쓰지도 짜지도 않고 오히려 매운 맛에 가깝기에 매운맛이 금(쇠)의 기운이다. 단맛은 모든 곡식에 있는 것으로 곡식은 땅이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맛은 바로 토(土)의 맛이다.

### 3) 오행과 12지

오행은 五氣를 낳고, 다섯 가지 작용을 만들어 다시 오덕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인간사회의 생명의 흥망을 바로 그런 오행 중 어떤 덕과 상응관계에 놓이느냐에 의해서 결정되기에 그러하다.

많은 것은 적은 것을 이긴다. 그러므로 수는 화를 이긴다는 것은 물이 많으면 불을 깨뜨릴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정밀한 것은 견고한 것을 녹인다. 그러기에 화는 금을 이긴다는 것은 불이 금을 녹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강한 것은 유약한 것을 이긴다는 것은 금이 목을 친다는 것이고, 쇠로 만든 기구를 가지고 나무를 벨 수 있음을 말한다. 뭉친 것은 흩어진 것을 이긴다는 것,

그것은 목은 토를 이긴다. 시한 것은 허한 것을 이긴다는 것, 그것은 토는 수를 이긴다는 것으로 흙이 물을 막을 수 있음을 뜻한다. 4)

즉, 이러한 다섯 가지 성격은 오성(인, 예, 신, 의, 경)으로 구분되며 다시 조형적으로 다섯 색으로 구분되어 등장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오행의 세계관은 12지와 연관되어 볼 수 있다.

자	수
축	토
인	목
묘	목
진	토
사	화
오	화
미	토
신	금
유	금
술	토
해	수

이 열 두 띠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王充의 論衡에서 이야기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것을 소재로 한 최초의 시는 십이속시라고 할 수 있다. 5) 이 12지는 오행과 결합하여 왕추의 논형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은 목에 속하며, 生肖 동물은 범이다. 술, 축, 미는 모두 토에 속하며, 그 生肖 동물은 개, 소, 양이다. 그래서 개소양은 모두 범에게 잡혀 먹히고, 해는 수에 속하며, 그 생초는 돼지이다. 자 또한 수에 속하며, 그 생초는 쥐이다. 사, 오는 화에 속하며, 그 생초는 뱀과 말이다. 물은 능히 불을 제압할 수 있다(水能剋火). 그러므로 화인 뱀의 독은 돼지에게는 아무 해가 되지 않으며, 물이 불을 끌 수 있듯이 수인 돼지는 화인 뱀을 잡아먹는다. 화인 말이 수인 쥐의 똥을 먹으면, 곧 배가 부풀어 고통을 느끼다 죽는다. 이렇듯이 실제 12지의 대한 생각은 오행과 연관되어 오행의 상생, 상극론과 연관되어 점을 보는데에 까지도 발전되게 된다.

3) 書經, “周書, 洪範”

4) 서북관, 중국인성문사, 臺灣 商務印書館, pp. 77-78.

5) 華惠倫, 吳皇 編, 십이생소논서, 상해과학기술출판사, 1990, pp.1-2.

#### 4) 디자인 개발

##### (1) 12지상 원형 시안



##### (2) 12지상 응용 상품

위의 조형성 즉, 음양 5행의 조형정신과 함께 상품을 개발한다.

##### • 응용상품

모든 사람들이 자기 띠에 맞는 제품들이거나 단순히 귀여운 마스크트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 ① 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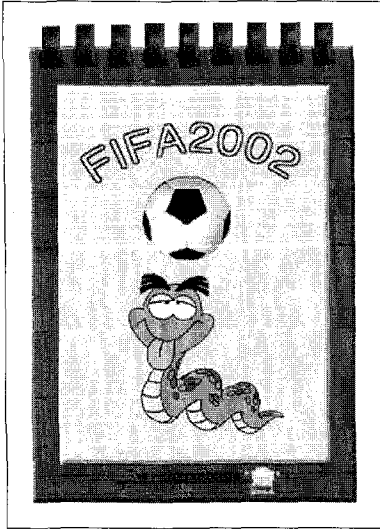
##### [용과 축구]

용은 우리 민족에게는 웅장하고 들뜨는 기분, 그리고 거대하고 야망이 넘치는 대담한 계획을 주는 동물로 생각하였다. 오래된 뱀이 승천하여 만들어진 상상 속의 동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실로 풍부한 속담과 신화를 낳았다.

용은 또한 맹렬함과 열정, 승고함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바로 이 '활달함'으로 조형적 성격을 정하였다. 또한 뱀과 같이 푸른 계통으로 처리되어 길한 '푸른 뱀, 용'을 상징하여 우리 민족의 고유한 사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은 비단 용띠만이 아니라 12지 모두 가방으로 캐릭터화하여 제작하고 즐겁고 경쾌한 생활의 길잡이가 되도록 하며, 2002년 월드컵 행사에서 관객들에게는 긴요한 물품이 될 것이다.

② 달력



[뱀과 축구공]

올해는 뱀띠 해로서 뱀을 귀여운 모습으로 캐릭터화한 작품이며, 매년 해당되는 12지를 보다 친근하게 모든 사람에게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한 작품 중 한 예이다. 뱀은 보통 교활함을 가지면서 신중하고 신중함을 가진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우리 민족에게는 '뱀을 만지면 돈이 생긴다', '뱀이 따라가면 아내의 힘을 얻는다', 그리고 '푸른 뱀을 보면 운이 좋다' 등의 속담에서 보면 뱀은 복과 재산, 건강 또는 자손의 번성함 등 길한 복을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뱀은 이지적이며 단정한 성격으로 12지에서 규정하기도 하였다. 바로 우리 민족의 이러한 뱀에 대한 선한 의식을 반영하였다. 또한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를 맞이하여 귀여운 모습으로 헤딩하고 있는 뱀으로 형상화하여 더욱 친근한 전통의 모티브를 만든다.

③ 티셔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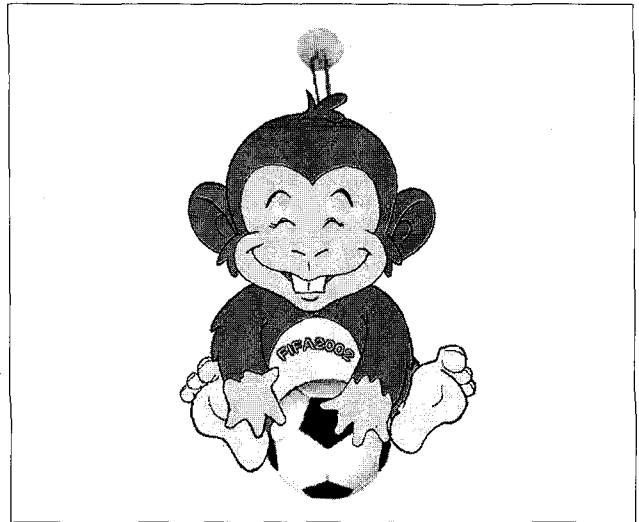
[강아지와 축구공]

귀여운 강아지가 공을 갖고 노는 이미지를 담은 티셔츠를 제작하여 많은 사람들이 귀엽게 자기 띠에 대한 애착을 갖도록 한다. 더욱이 2002년의 월드컵을 기념하여 더욱 친근하게 느끼게 한다. 개는 전통적으로 우리에게는 가장 가까운 동물로 충실함 순응성을 갖는가 하

면 사람의 집을 지켜주기도 하고, 사냥에 도움을 주는 인간의 삶에 중요한 동반자이다.

또한 개는 '개가 높은 건물 위로 오르거나 공중을 날면 높은 관직에 오르거나 출세하게 된다'라는 꿈 해몽이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길한 가축으로 이해되었다. 이렇듯 귀여운 강아지를 가벼운 티셔츠 위에 그려 넣어 더욱 인간의 애정과 동물의 대한 사랑, 그리고 12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보여준다.

④ 마스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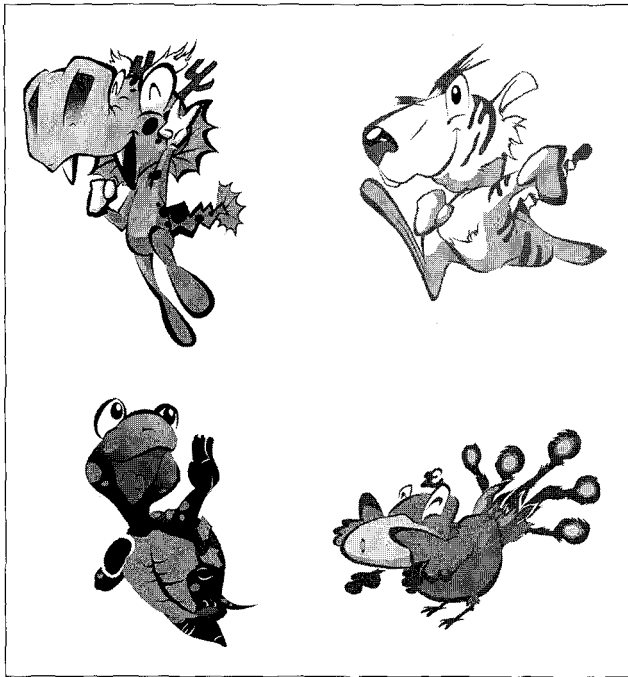


[원숭이 마스크트]

장자의 제물론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고사성어가 나온다. 이는 원숭이가 영리한 듯 보이나 실제 우둔함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에서 다소 부정적인 예로 사용된 적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민족에게 원숭이는 동물 중 인간 다음으로 가장 똑똑하고 쾌활하며 항상 장난치기 좋아하는 즐거운 성격을 갖고 있는 동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원숭이는 재주가 많아서 이 띠를 갖는 사람들은 재주가 많고 총명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 띠의 이런 성격 즉, 쾌활함, 명랑함, 총명함에 기초하여 형상화한 작품이다. 유니나 타일 등에 어디에나 부착하여 항상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마스크트로 이용하도록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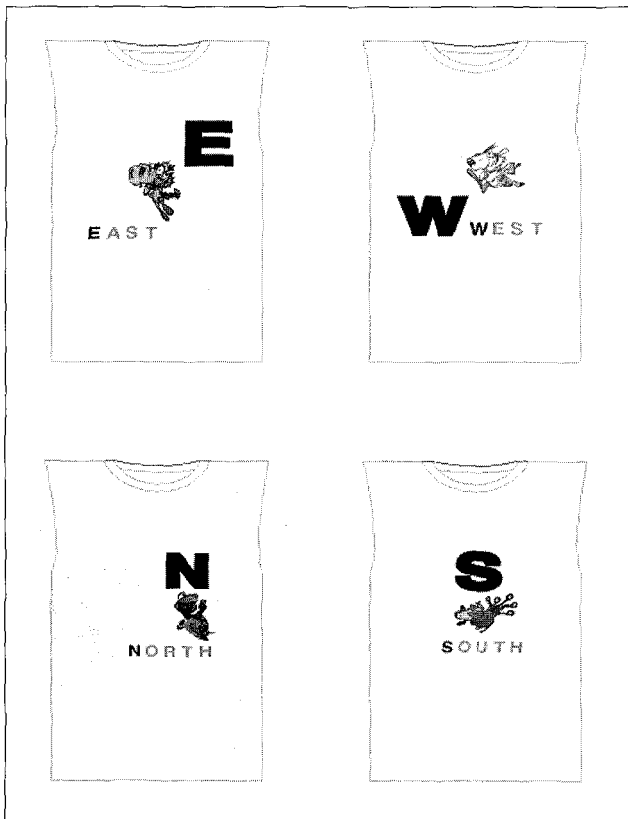
위의 네 가지 예에서 보이듯 우리의 전통의식에 기초한 귀엽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목표를 두고 개발하였다. 음양의 대조적인 조형성 즉, 직선과 곡선의 교차와 한난적인 색상의 대조 속에서도 귀여움을 잃지 않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3) 사진도 원형 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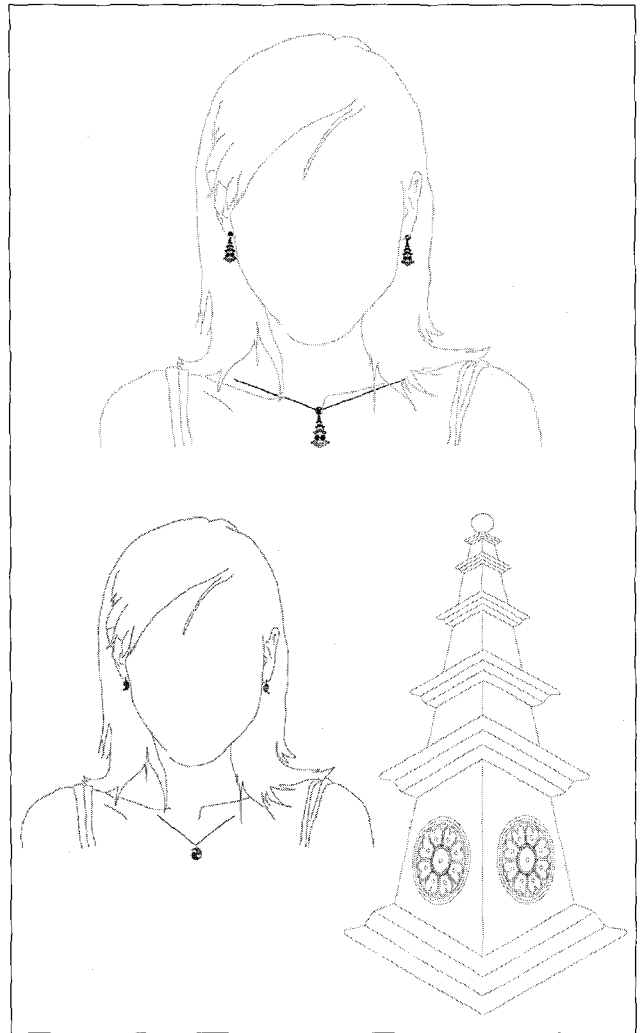


(4) 사신도 응용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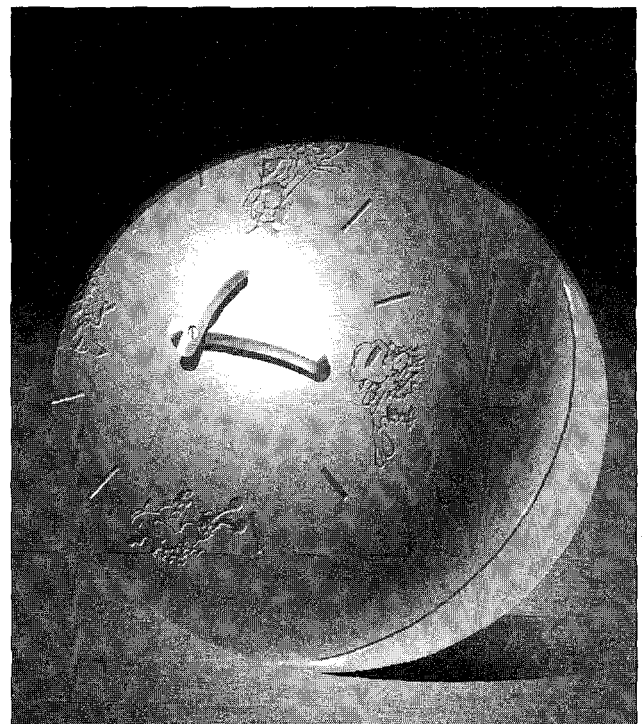
① 티셔츠



② 악세사리



③ 탁상시계





### 3. 장승과 응용 상품

#### 1) 장승에 대한 이해

장승은 한국의 마을 어귀나 절의 입구 또는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 장승은 우리가 전통적인 디자인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한 전통적인 소재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장승은 한국 민간생활과 신앙 세계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한국인의 고유한 정서와 아름다움을 전하는 한국적인 세계를 열어주는 소재이기 때문이다.

장승은 보통 돌로 만든 석장승과 나무로 만든 목장승이 있으며, 실제 전국에 분포한다. 장승의 기원에 대해서는 고대의 성기(性器)승배에서 나온 것이며, 이는 長生庫에 속하는 사전(寺田)의 표지(標識)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또한 장승의 유사한 관계로 솟대(蘇塗)에서 목장승이 유래되었다고 생각하고, 석장승은 선돌(立石)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등의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확실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장승의 명칭도 조선시대에는 '후(瑿)', '장생(長攄)', '장승(長丞, 張丞, 長承)'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 장승·장성·벽수·법수·당산할아버지·수살목 등의 지역에 따른 다양한 이름들이 존재한다.

#### 2) 장승의 기능과 의미

우리 고유의 장승은 첫째, 지역 간의 경계표나 이정표의 기능을 가졌으며 둘째, 마을의 수호신 역할이다. 길가나 마을 경계에 있는 장승에는 그것을 기점으로 한 사방의 주요 고을 및 거리를 표시하였다. 수호신으로 세운 장승에는 이정표시나 '천하대장군' 등의 표시도 없고 마을의 신앙으로서 주로 액병(厄病)을 빌었다. 장승은 보통 암수로 쌍을 이뤄 남상(男像)은 머리에 관모를 쓰고 전면에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 '상원대장군(上元大將軍)'이라 새겨 있으며, 여상(女像)은 관이 없고 전면에 '지하대장군(地下大將軍)',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 '하원대장군(下元大將軍)'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장소에 따라 채색·형상·크기 등이 다르나 모양이 괴엄(魁嚴)한 점만은 일치한다. 장승에 쓰는 장군명에는 민속적인 신명(神名)이 등장하는데 동쪽에 있는 장승에는 동방청제축귀장군(東方靑帝逐鬼將軍), 서쪽에는 서방백제축귀장군(西方白帝逐鬼將軍), 남쪽에는 남방적제축

귀장군(南方赤帝逐鬼將軍), 북쪽에는 북방흑제축귀장군(北方黑帝逐鬼將軍)이라고 써서 세워 축귀하는 민간 신앙의 성격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장승을 서낭당이나 산신당, 솟대와 유사하게 액운이 들었을 때나 질병의 전염 등을 막는 기능으로 이해하여 그 앞에서 제사를 지냈다.

#### 3) 장승의 역사와 유형

##### (1) 조선 전기 이전의 장승

장승은 경계표시나 이정표 또는 수호신으로서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 뿌리 깊게 자리해 온 민속신앙의 조형물이다. 과거 원시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천여년의 역사를 지니며 변화하여 왔다고 예측하고 있다. 장승의 기원은 솟대나 신목 등과 함께 신석기, 청동기시대의 원시신앙물로서 유목·농경문화의 소산으로 파악되며 일종의 수호신상으로서 부족민의 공통적 염원을 담은 상징물로 보고 있다.

삼국시대 들어 중앙집권적 국가 기틀이 마련되고 불교·도교·유교 등의 이데올로기가 체계화되고 장승은 불교와 사상적으로 연결되어 전승되게 되나 실제로 민간 신앙과 관계가 깊게 발전되어 내려온다. 그래서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이르는 기간동안 장승은 민간신앙의 지면으로 흘러들었을 뿐 불교의 제도권과는 관계가 깊지 않았고 사회에서 지도적 종교였던 불교는 장승의 의미를 약화시켜 사찰의 경계표시나 호법적인 기능으로 축소하게 된다.

##### (2) 조선 후기의 장승문화

이처럼 민간신앙의 한 형태로 이어온 장승은 16-17세기 임진과 병자 양란을 거치면서 민중들의 문화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된다. 그러한 장승은 크게 마을장승과 사찰장승으로 구분된다. 마을 장승들은 대개 마을의 농업과 노동과 관련하여 발전하며 보통 선돌이나 남근석과도 같은 신앙적 조형물과 연관된다. 가장 오래된 예는 1689년에 세워진 부안의 시문안 당산과 동문안 당산을 들 수 있다. 선돌과 돌 솟대에 새겨진 시주자 명단을 통해 '가선대부 김성립(金成立)' 등 양반 지주는 물론 조갑신(曹甲申) 등 서민층까지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김제·금구평야의 농업적 생산력을 바탕으로 당시 사회의 변화에서 부상하는 부유한 사람들과의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진 민중의식의 성장과 관련되어 발전된 것으로 보여진다. 남원 운봉의 들장승이나 고창의 당산 등 향촌사회가 변화하는 가운데 18세기 영·정조시대를 거쳐 19세기

에 들어서면서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사찰장승의 경우 도갑사·불회사·운흥사·실상사 석 장승들이 모두 18세기 초에 세워진 사실로 보아 병자호란 이후의 대대적 불교중흥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시 말해 금산사 미륵전, 법주사 팔상전, 화엄사 대웅전과 각황전 등 대가람의 조성과 함께 도교적 민간신앙 성격을 내포한 칠상각·산신각·삼성각 등이 불교로 흡수되어 배치되는 점은 당시의 불교의 중흥과 민중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절의 부처상이 마을로 내려와 민중들의 생활현장에 자리한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화순 벽나리의 민불이 이것이며, 민간신앙의 선돌문화와 결합하여 토착화된 불교문화의 예로서 민중들이 자신들의 심성과 요구를 돌미륵에 담아내는 것이었다.

연봉을 한손에 들고 미소를 짓는 미륵상은 마을 주민들의 염원을 응집해내는 것이었다. 사찰장승의 유행 역시 이렇게, 종교적이면서도 민중과도 연관되어 형상화되었다고 보여진다. 대부분의 절의 입구에 수호신 내지 호법신으로서 절의 경계표지의 상징물로 세워진 것이다. 형태는 금강역사 또는 사천왕의 이미지를 장승형태에 결합시킨 경우와 마을장승의 모양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경우로 나뉜다.

#### 4) 장승의 인간적인 특징

장승은 얼굴 표정에 따라, 여러 성격으로 구분되어 발전되어 나온다.

##### (1) 장군의 위엄

1725년에 세워졌다는 남원 실상사 입구에 세워진 두 쌍의 장승은 둥근 눈과, 주먹코를 하고 병거지 모자를 쓰고 있다. 그 중에서 대장군과 주장군은 불교의 사천왕이나 인왕상처럼 초능력의 힘과 위엄을 보여 주며, 양미간 사이에 백호 모양의 돌기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둥근 돌기와 함께, 얼굴의 살아있는 입체감은 권위적 성격이 사찰장승의 대표격이다. 이처럼 불교적 형상미를 담고 있는 장승으로는 무안 총지사터와 법천사 장승 등을 들 수 있다며, 우리 장승의 중요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안에서는 이러한 장승의 특징은 사람들과 친밀감을 더 중요시하기에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다.

##### (2) 민중 모습

지리산 남원 운봉마을의 방어대장군·진서대장군이라 쓰여진 장승은 세모형의 병거지 모자와 둥근 눈, 주먹코와 합죽이 입 등이 쓰여진 이름과는 관계없는 평범하다 못해 못생긴 일반 민중의 얼굴이다. 거친 재질감과 함께 별다른 조형적 장식없이 천진함과 순박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 남원지역 하여 인근 마을에 넓게 장승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진솔한 표현은 예로 곡성의 장승, 보성 해평리의 상원주장군과 하원당장군, 정읍칠보의 장승 등이 있으며, 본 연구안에서 디자인 개발의 주개념이 되는 조형적, 정신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3) 전형적인 촌부

부안 읍내에 있는 두 쌍의 돌 장승은 전형적인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형상화한 것으로 할아버지는 상원 당장군, 할머니는 하원 주장군이라 불린다 이 장승은 인자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표정이 잘 나타나 있다. 이중으로 둘러친 선으로 눈이나 납작한 코는 장승의 또 다른 괴이한 인상을 주어 장승의 여러 다양한 성격을 보여주는 특징이기도 하다.

나주 불회사 입구 돌장승은 우리나라 돌장승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이는 사찰장승이지만 마을장승을 그대로 옮겨 예로서 할머니상은 주장군, 할아버지상은 당장군이다. 사실적인 박진감이 넘치며 우리네 주변의 친숙한 할머니·할아버지 상의 전형으로서 해학성이 넘치는 가운데 맑고 인자한 표정을 짓고 있다.

1719년에 세워진 나주 운흥사의 돌장승, 상주 남장사나 창녕 관룡사 입구의 돌장승이 있으며, 영암 도갑사나 쌍계사터의 돌장승 등도 이와 유사한 것들이다.

##### (4) 아름다운 젊은 장승

진도 덕병리 돌장승은 잘생긴 소년의 모습으로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무안 남산공원의 동방대장군과 서방대장군 역시 간결한 느낌의 미소년상이다. 한편 부안읍성의 또 다른 돌장승은 거칠고 건강한 수호신적 형상미가 강조되어 있다. 이는 조선 후기에 많이 제작된 무덤가 석인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흥 관산 장승, 선산 산동 장승, 통영 삼덕마을 장승, 송창 읍내 장승 등이 모두 같은 맥을 이루며 시대가 내려올수록 간결해지고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 (5) 상징적 석인상

어느 지역보다 지방색이 강한 제주도에는 '하루방' 이라 불리는 들장승이 전승된다. 1717년 제작된 제주 삼문밖 하루방으로 보아 18세기경에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특유의 장승이들에 태권도형의 손과 배불뚝이 몸체, 왕방울 눈으로 특징을 살려 표현하였다. 이는 제주도 전래의 무덤가 석인상 형태를 공동체적 이미지로 바꾸어 그들 나름의 전형적 수호신상을 창출해 낸 것이다.

#### (6) 나무 장승의 단순미와 자연미

호남·영남·제주 지방에 석장승이 있는데 반해 목장승은 경기·충청지방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목장승은 보존이 어려워 오래된 예를 찾기 어렵고 20세기 들어 변질된 장승들이 대부분이지만 순천 선암사 입구의 목장승은 18세기 석장승들과 맞먹을 만큼 오래 된 것으로 추정된다. 마모가 심해도 얼굴표정을 살려낸 칼로 표현된 특징이 뛰어나게 보인다. 미천 벽송사, 하동 쌍계사 나무장승 등이 있는데, 이는 사찰의 수호신상으로서 이미지를 과장하여 무서운 느낌이 강하다.

또한 나무의 성격을 잘 강조한 예로, 큰 나무를 뿌리째 뽑아 거꾸로 세우고 산발한 머리 모양으로 뿌리모양을 살린 고창 선운사와 부안 내소사 장승이 독특한 특징으로 보인다. 천연 나무의 자연미의 형태미와 함께 위압적이고 괴기스런 외경스러운 인상을 주는 경우이다.

나무의 상징성과 재질감을 잘 살리고 이목구비를 간결하게 요약하여 민중적 심성을 훌륭히 담아 낸 예가 엄미리를 비롯한 경기도 광주군 일대와 공주 탄천의 장승·숫대, 은산 별신제 장승들로 들 수 있다. 앞으로 전개될 조형적 작업에서 이러한 나무의 재질감을 다양한 조형성을 살린 상품 개발이 요구된다고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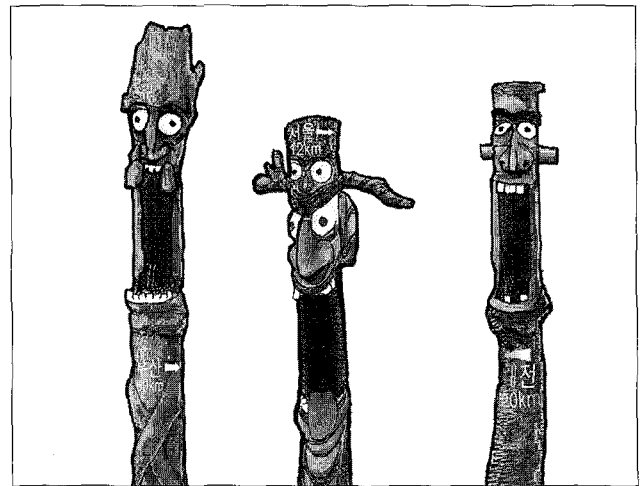
#### (7) 변형된 장승

19세기말 조선 말기 사회의 변화와 함께, 외세의 침입으로 무산되면서 대중적인 향쟁이 많아졌고, 이 와중에 조선 후기의 변창했던 민속문화와 평민문화가 변화가 생기게 된다. 1906년에 세워진 통영 문화동의 석장승은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들 수 있다. 이 장승은 토지대장군이라고 하며 얼굴 및 턱수염, 머리, 귀 등에 채색을 가한 화장한 장승이다. 전체적으로 과장된 형태로써 장승의 수호신적 의미를 강박관념으로 처리한 데서 나온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수호신적인 무서운 표정의 강조는 이후 20세기에 제작되는 장승의 일반적인 모형으로 자리잡게 되어 이전의 친근함의 장승은 적게 보이게 되는 한 현상을 보여준다.

### 5) 디자인 개발

이렇게 살펴본 장승은 소박한 민간신앙에서부터 기능이 있는 이정표, 표지의 기능, 수호의 기능, 다산과 풍요의 기원 등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갖는다고 하겠다. 이는 또한 조선시대의 소박한 민중들의 삶을 대변하며, 직접 민중들이 공동체적 생활 속에서 삶의 정서를 조형적으로 표출해 낸 위대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더욱 단순한 디자인 상품으로만 있는 것이 아닌 민족의 얼을 살리는 상품으로 되살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디자인 상품이 아닌 얼이 실린 작품이 되어야 될 것을 생각해서, 본 연구안의 작품은 위의 이야기한 여러 특징들이 살아있는 조형적 즉, 고유한 장승의 정서와 우리 문화를 전승하는 역할을 한다는 데 중요함이 있다.

따라서 우리의 연구안에서는 민중의 소박한 모습에서 기초한 한국인의 박진감과 해학성, 천진함, 순박함 등을 표현하는 조형적 성격을 보여주려 한다. 이러한 성격에 기초한 장승은 우리에게 더욱 친한 모습을 다가올 것을 기대하며 장승의 원래 기능이었던 이정표와 도로,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유용한 쓰레기통을 디자인한다.



[장승과 이정표]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장승은 이정표와 경계 표시로 많이 사용되었고, 또한 길가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수호신같은 의미도 있다. 이 장승의 원래 의미를 현대 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계승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인식하여 이러한 이정표 디자인을 개발한다. 장승의 친근함이 항상 이웃 같으며, 그 얼굴의 적당한 근엄함은 여행객의 여정에 안전을 상기시키는 훌륭한 이정표라 할 수 있다.

##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디자인은 전통에 대한 올바른 다양한 인문학적, 조형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기초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안에서 주안점을 둔 점은 우리의 전통과 연관하여 볼 수 있는 평이로움과 안이함, 그리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디자인 제품을 생산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 한국인의 세계관이자 동양인에게 뿌리깊게 발전되어 내려온 12지와 동양적인 세계관을 더욱 음미하며 모든 이들의 자기의 띠에 어울리는 마스크트와 기념물, 가방이나 달력 등 생활용품을 개발하여 잊혀져가는 전통적인 세계를 더욱 살아있는 예술로 남겨 한다. 그럼으로써 살아있는 우리의 전통세계를 아름답게 구현한다. 또한 하나의 연구예로 보여진 장승등을 이용하여 우리 민족의 전통적이며 소박한 민간신앙에 흐르는 따뜻한 정서와 아주 인간주의적인 세계를 더욱 창작 작품을 통해서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우리의 독특하고 개성적인 민족적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은 진정한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기르는 것이며, 또한 바로 2002년에 열릴 월드컵경기와 같은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국제행사는 우리의 문화와 고유한 디자인 상품을 세계에 선보이는 기회이므로 본 연구와 같은 한국성에 기초한 디자인 개발 연구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선풍, 한국인의 금기어와 금기담, 어문논집23, 중앙대학교 국어국문과, 1994.
- 書經, 周書, 洪範.
- 서복관, 중국인성론사, 臺灣 商務印書館
- 양계소, 음양오행설지래역, 동방잡지 제20권, 제 12호, 1923 (김홍경 편역, 음양오행설의 연구, 신지서원) - 1993. 8.
- 이찬욱, 한국의 띠문화, 황금시대, 1999.
- 華惠倫, 吳 皇 編, 십이생소논서, 상해과학기술출판사, 1990.